

한국문헌정보학 학문영역의 변천 과정에 관한 고찰

- 학술지 논문 주제분석을 기반으로 -

A Study on the Historical Proces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omain in Korea: Based on the Subject Analysis of Academic Journals

정 등 열 (Dong Youl Jeong)*

목 차

| | |
|--------------------------------------|----------------------------------|
| 1. 서론 | 3.3 1970년대: 도서관학 중심에 서지학 공존의 태동기 |
| 2. 학문영역 연구의 이론적 배경 | 3.4 1980년대: 3대 하위영역 도약기 |
| 2.1 학문영역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 | 3.5 1990년대: 3대 하위영역 성장기 |
| 2.2 문헌정보학의 하위영역 및 세부주제 구분에 대한 이론적 연구 | 3.6 2000년대: 4대 하위영역 정립기 |
| 3. 학술지 논문 주제분석 및 학문영역 변천 과정 | 3.7 2010년대: 4대 하위영역의 황금기 지속 |
| 3.1 분석방법 및 분석대상 | 3.8 통시적 분석 |
| 3.2 1970년 이전: 도서관학 교육체제 수립기 | 4. 결론 및 논의 |

초 록

본 연구는 한국문헌정보학 분야가 학술적 연구활동을 시작한 1970년 이후 문헌정보학 학문영역이 어떠한 형태로 성장하였는지 그 변천 과정을 고찰하였다. 1970년부터 2015년까지 문헌정보학 분야 6개 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 5,915편을 대상으로 연도별 및 10년대별로 구분하여 세부주제 내용을 분석하였다. 학문적 연구활동의 매개체인 6개 학회지 논문의 주제분석을 통하여 문헌정보학 학문 전체의 발전 과정은 물론 4대 하위영역별 변천 과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historical proces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omain since 1970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major subjects of 5,915 articles which were published through six academic journals in LIS area from 1970 until 2015 by year and over 10-year periods. The results show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LIS domain itself and 4 sub-domains through subject analysis of 6 academic journals.

키워드: 문헌정보학, 학문영역, 주제분석, 학술지 논문분석, 문헌정보학 변천 과정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 LIS Domain, Subject Analysis, Academic Journal Analysis, Historical Process of LIS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교수(dyjeong@ewha.ac.kr)

논문접수일자: 2016년 10월 24일 최초심사일자: 2016년 10월 24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11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4): 5-34, 2016.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4.005]

1. 서론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 분야가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시작한 지 60여 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새로운 학문이 고유한 학문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차별성과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이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발전하였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른 학문과 관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등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정체성이나 연관성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일은 문헌정보학의 발전을 위해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오랜 시간과 많은 데이터의 분석이 수반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이 뿌리 내린 지 60여 년이 경과함과 동시에 학술적 연구활동이 시작된 지 50여 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한국문헌정보학 학문영역이 어느 시점에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형태로 성장하였는지 그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문헌정보학의 4대 하위영역인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의 태동과 성장 과정에 대한 시기를 논문의 내용분석에 의한 영역별 빈도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변천 과정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 6개 학회지를 대상으로 연도별 및 10년대별로 구분하여 논문의 세부주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각 학회지의 연구 흐름은 물론 6개 학회지 전체의 연구 동향을 부분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문적 연구활동의 근본적인 매개

체인 학술지 논문의 세부주제 내용분석을 통하여 문헌정보학 전체적인 학문의 발전 과정과 4대 하위영역별 변천 과정을 고찰해 봄으로써 앞으로 연구 및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학문영역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학문영역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

문헌정보학 학문영역에 대한 연구는 다른 주제내용에 비하여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문헌정보학 학문영역에 대한 거시적이며 포괄적인 연구로는 1995년에 한국정보관리학회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남 외(1995)는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에 새로운 위상과 학문적 성격 규명을 재조명함으로써 향후 문헌정보학계가 추구해야 할 방향 제시를 위하여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헌정보학의 이론체계 및 연구영역과 교육방향, 교육영역 및 교과과정, 연구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진식(2001)은 1990년대 후반기인 1996년부터 2000년 기간 동안 한국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고 학문의 연구영역과 타 학문과의 주제 의존도 및 문헌정보학의 지적구조 변화를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정보학이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추세를 밝힘과 동시에 전반적인

학문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유사한 연구로 손정표(2003)는 문헌정보학 전 주제 분야에 걸친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 관련 7개 학회지와 각 학과 창립기념논문집 및 3개 전문기관지 등에 게재된 1957~2002년 기간의 발표 논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각 분야별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박자현과 송민(2013)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4개 학회지의 논문 초록을 수집하여 토픽 모델링 실험을 수행하여 문헌정보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연구주제를 찾고자 하였다.

그 외 문헌정보학 하위영역에 대한 개별적 연구로는 학문영역 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연구동향, 연구논문 출판동향, 교육방향, 교과과정 등 특정 부분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현(1991)은 정보학의 학문영역 정립을 위한 접근 방법을 정보학의 개념이나 정의에 의한 연구영역 접근 방법, 정보학 교재내용 분석 방법, 대학원 교육과정 분석 방법,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방법, 그리고 학회 등에서 제시한 기준 분석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오세훈과 이두영(2005)은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과 논문에 인용된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논문의 주제 및 간행 시기별 분포,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 및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주제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란주와 임지혜(2002)는 한국의 서지학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0년과 2001년에 발행된 <서지학연구>의 논문 51편과 그 논문에서 인용한 1,321개의 인용문헌을 조사·분석하였다. 논문의 주제와 저자관련 사항, 참고문헌의 유형과 수, 학술지의 종류, 참고문헌 발행국

과 언어, 인용저자 등의 분석에서 서지학의 학문적 성격 변화를 조사하였다. 한미경(2016)은 서지학 분야 학술지인 <서지학연구>를 대상으로 지난 30년간의 논문수와 공저논문을 조사·분석하고, 2006~2015년의 10년간의 주제영역 저자수, 핵심저자, 저자의 신분, 소속기관, 전공의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남태우와 이진영(2009)은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학술지의 논문을 주제영역별, 간행시기별, 학술지별, 연구자별 분포를 분석하여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김규한, 장보성, 이현정(2009)은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지 3종에 게재된 논문 제목의 구문 및 의미구조를 기반으로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영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344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대상이 핵심 연구대상이며, 핵심 연구대상은 어떤 연구도메인에서 어떤 연구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2.2 문헌정보학의 하위영역 및 세부주제 구분에 대한 이론적 연구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은 전통적인 도서관학을 근간으로 1960년대 이후 발달한 정보학, 도서의 고증과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되는 서지학, 최근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기록관리학이 합쳐진 종합학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문헌정보학의 4대 하위영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정동열, 조찬식 2007).

도서관학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보자료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정리 및 처리방법

과 도서관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과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발생되었다. 따라서 문헌이나 자료를 인식하고 수집, 정리, 조직, 운용하는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도서관의 목표와 기능,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론, 원칙, 방법 및 기술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정보학은 1960년대부터 도서관학 영역에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조직과 처리 및 유통에 관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면서 정보나 자료에 대한 관리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정보학은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시스템, 최근의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와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의 속성과 행태, 정보의 흐름을 지배하는 요인 및 최적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가지도록 정보를 가공·처리하는 수단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서지학은 도서의 고증 및 해석을 통하여 그 역사를 밝히는 분야를 의미한다. 열거서지학 또는 목록학은 문헌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거나 이미 엮어진 목록 또는 서목을 연구하는 영역이며, 분석서지학 또는 원문서지학은 책의 본문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본래의 원문을 복원하는 영역이고, 기술서지학 또는 형태서지학은 책의 물리적 형태의 여러 특징과 그 변천 과정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 조사하여 기술하는 학문영역이다.

기록관리학 또는 기록학은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관리학은 기록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각종 기술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분야이다. 고문서나 정부 및 기관의 기

록 자료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현장을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순수과학보다는 응용과학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의 4대 하위영역으로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의 각 영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도서관학 영역과 정보학 영역에서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서지학 영역이나 기록관리학 영역은 다른 하위영역과 세부주제에 있어 뚜렷한 구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Järvelin과 Vakkari(1990)의 문헌정보학 학술지 내용 연구, 김성진과 정동열(2004)의 세부주제 영역별 이론 연구, 서은경(2010)의 정보학 분류스킴 연구, 박지연과 정동열(2013)의 문헌정보학 지적구조 분석, 한국십진분류법(KDC) 6판(2013), 한국연구재단(2016)의 학술연구 분야분류표에 실린 문헌정보학 분야 분류항목 등에서 제시한 주제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세부주제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항목은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외 연구동향과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기존 항목을 적절히 통합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다. 논문의 세부주제는 가능한 4대 하위영역 중 하나에 속하도록 하였으며, 복수 주제의 경우 최대한 관련성이 높은 세부주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최근에 문헌정보학에 응용되고 있는 데이터 과학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영역은 정보학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 4대 하위영역에 대한 주요 세부주제 구분의 기준으로 <표 1>을 이용하여 학회지 논문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표 1〉 문헌정보학의 4대 하위영역 및 세부주제 구분

| 하위영역 | 주요 세부주제 | |
|-------|----------------|---|
| 도서관학 | 도서관 환경·이론 | 도서관학과 사회 환경, 도서관학 이론·방법론, 도서관사, 교과과정, 도서관법·제도, 사서직 전문성, 주제전문사서, 출판 및 저작권, 기타 문헌정보학 공통사항 |
| | 정보자료 유형별 선택·평가 | 수서, 자료선택, 장서관리 및 평가, 특수자료, 시청각자료, 아동청소년자료, 정부간행물 |
| | 정보봉사·서지서비스 | 참고정보봉사, 주제분야별 서지정보서비스, 정보자료유통, 이용자별 봉사, 도서관 이용교육, 독서교육 및 독서치료, 도서관협력, 상호대차, 도서관 마케팅, 다문화 서비스 |
| | 정보자료 조직 | 분류법, 비교분류, 목록·목록규칙, 색인, 초록 |
| | 관중별 봉사·운영 | 관중별 연구·봉사(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도서관 운영·조직관리 |
| 정보학 | 정보이론·방법론 | 학술정보커뮤니케이션, 계량정보학, 인용분석, 용어분석, 정보산업, 정보관련 법·제도 |
| | 정보공학 | 정보시스템의 설계·개발·운영·평가, 정보검색 엔진, 정보검색 서비스, 온라인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 관리, 정보네트워크 설계·개발, 뉴미디어, e-book, 정보 관련 프로그램 개발, 온톨로지 기반 설계 |
| | 정보자동화 | 도서관자동화, 자동색인, 자동분류, 메타데이터, 시소러스, 기계가독목록, OPAC, 인터페이스, 인터넷, 전자정보원, 웹 정보원, 오픈액세스, 디지털도서관, 하이퍼텍스트 |
| | 정보이용자 | 정보요구분석, 정보탐색행위, 온라인정보 이용교육, 웹 정보 활용, 적합성 평가 |
| 서지학 | 서지학 교육·방법론 | 서지학 교육·연구, 서지기술 방법, 고전자료 디지털화 |
| | 열거서지학 | 목록학, 문서 정리(원리, 방법 등), 문서의 원류·성쇠·추이 연구 |
| | 원문서지학 | 문서의 수집, 보존, 분산 등에 관한 사정·방법·역사, 원문의 복원·전래 과정 |
| | 형태서지학 | 관본학, 문헌의 제작원리(간사방법·시기·특성 등)·발전 과정 |
| 기록관리학 | 기록관리학 이론 | 기록관리학 교육, 기록전문직, 기록물 인식론·관리론, 기록물 기능분류, 기록물 프로그램 |
| | 기록물 생성·배포 | 기록물 생성 배경, 내용 규명, 표준화, 종류, 법률 |
| | 기록물 이용 | 기록물 정보서비스, 제공, 공개 |
| | 기록물 관리 | 기록물 정리 기술·검색·색인, 관리기관 운영론, 기관 레포지터리, 전자기록관리시스템 |
| | 기록물 처리 | 기록물 이관, 평가, 선별, 폐기, 보존, 매체론 |

3. 학술지 논문 주제분석 및 학문 영역 변천 과정

3.1 분석방법 및 분석대상

특정 학문분야의 학문영역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접근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가장 일

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는 해당 학문분야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으로 생산된 학술지 논문의 주제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들 개개인의 학술적 연구를 통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해당 학문분야의 영역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연구논문이 많이 생산된 주제내용일수록 그 학문분야에서 핵

심적인 학문영역으로 간주된다는 기본적인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대학에서 강의되고 있는 교재내용이나 교과과정에 대한 분석 방법,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구분되는 세부전공을 통한 분석 방법, 해당 분야의 학회나 학술단체 등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한 분석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으로 생산된 학술지 논문의 주제내용을 개별 논문의 제목과 초록 분석을 통해서 <표 1>에서 제시한 문헌정보학의 4대 하위영역과 세부주제 구분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문영역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학술지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의 6개 학회에서 발행되고 있는 6개 학회지의 논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별 학회지의 발행시기가 빠른 순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1970년~), <한국비블리아학회지>(1972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1974년~), <정보관리학회지>(1984년~), <서지학연구>(1986~), <한국기록관리학회지>(2001~)를 대상으로 각 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15년 마지막 발행분까지 게재된 전체 논문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세부주제 내용을 분석하였다. 단, 서지학 영역의 <書誌學報>와 기록관리학 영역의 <기록학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자는 물론 다른 학문분야의 연구자들도 논문을 많이 게재한 관계로 문헌정보학의 학문영역 변천 과정 분석을 연구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문헌정보학 분야 6개의 학회지에 2015년까지 발표된 총 논문수는 5,915편으로 학회지별로

논문 수를 보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415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 713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510편, <정보관리학회지> 1,167편, <서지학연구> 803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07편이 조사되었다. 학회지 조사기간은 1970년부터 2015년까지로 하였으며, 시기별 분석 프레임은 1년 단위를 기본으로 10년대별로 구분하여 1970년 이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는 2015년까지로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은 각각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세부주제 내용을 1년 단위로 연도별 분석을 수행한 후, 구분된 시기별로 4개 하위영역에 빈도를 계산하였다. 학회지에 게재된 문헌 중에서 연구논문이 아닌 발간사, 초청연사 강의, 외국인의 각종 글 등은 전부 제외되었다.

3.2 1970년 이전: 도서관학 교육체제 수립기

우리나라에서 도서관학 교육의 시초는 1954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3학점 선택교양과목으로 개설한 후, 1956년에 부전공과목으로 학부고학년을 위하여 12학점이 개설되었다. 대학의 정규 전공학과로는 1957년에 미국 Peabody대학교의 협조로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었다. 동시에 연세대학교에서 학부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 현직 도서관직원의 재교육을 위하여 1년제 '한국도서관학당'을 설치하고 고급사서과정과 사서교사과정을 개설하였다.

도서관학이 신학문으로서 대학사회와 학계에서 좋은 평가와 인정의 반응을 보이고 높은 인기를 얻게 되자, 우리나라 대학교육계에 도서관학과 신설의 붐이 일기 시작했다(리재철 2010).

1959년에 이화여자대학교, 1963년에는 중앙대학교, 1964년에는 성균관대학교가 개설하여 1970년 이전까지 서울에서 4개 대학교에서 도서관학과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70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8개의 대학교와 5개의 전문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었다.

도서관학과 설치에 따라 도서관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연구자 수의 증가는 물론 상호협력과 공동연구에 필요한 학술단체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1970년 1월에 한국도서관학회가 창립되었다. 1970년 이전까지는 도서관학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시기로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의 논문을 발표할 전문 학술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게재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시 학술논문 발표지로 활용되었던 3대 기관지인 한국도서관협회의 <도협월보>,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국회도서관의 <국회도서관보>에 발표하였다. 손정표(2003)는 1957~1970년에 3대 전문기관지에 발표된 논문을 영역별로 조사하여 도서관경영(172편)이 가장 많았고, 서지학(111편), 공공봉사(109편), 자료조직(94편), 도서 및 도서관사(39편), 문헌정보학 기초(34편), 정보학(22편), 장서개발(16편) 순으로 연구영역에 대한 관심도는 도서관학 영역인 도서관경영과 공공봉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3.3 1970년대: 도서관학 중심에 서지학 공존의 태동기

문헌정보학계에서 1970년대에 발행된 학회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의 <圖書館學>(1970년 제1집 발행), 한국비블리아학회의 <한국비블리아>(1972년 제1집 발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圖書館學論輯>(1974년 제1권 발행)만이 부정기적으로 발행되었으며, 세 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 수는 83편에 불과했다. 발표된 논문은 <표 2>와 같이 도서관학 영역 55편, 정보학 영역 4편, 서지학 영역 24편으로 도서관학 영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서지학 영역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에 몇몇의 학자에 의해서 정보학 영역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시기였다.

도서관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은 참고봉사, 독서지도, 도서관학 교육, 지정도서제도, 사서의 전문직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지학 영역은 문헌해제, 사부분류, 고서 및 고문헌에 대한 해석이나 형태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정보학 영역은 1970년대 후반에 도서관네트워크, 온라인정보검색시스템, Shannon의 정보이론 등 도서관에서 정보기술 활용에 필요한 체제나 정보학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는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표 2> 1970년대 학회지별/하위영역별 논문주제 분석

| 시기 | 학회지 | 하위영역 논문 수 | | | | 계 |
|--------|--------|-----------|---------|-----------|---------|----------|
| | | 도서관학 | 정보학 | 서지학 | 기록관리학 | |
| 1970년대 | 圖書館學 | 21 | 3 | 6 | 0 | 30 |
| | 한국비블리아 | 9 | 0 | 9 | 0 | 18 |
| | 圖書館學論輯 | 25 | 1 | 9 | 0 | 35 |
| | 계(비율) | 55(66.3%) | 4(4.8%) | 24(28.9%) | 0(0.0%) | 83(100%) |

1970년대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주로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도서관 운영과 봉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주제의 도서관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문학 배경의 기초적인 서지학 영역이 공존하는 문헌정보학 학문영역 형성의 태동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학 영역과 서지학 영역이 함께 문헌정보학 분야를 구성하고 있으나, 두 하위영역이 밀접한 학문적 유대관계나 연관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독립적으로 연구활동이 수행되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활동은 1970년에 한국도서관학회가 창립되어 <圖書館學>을 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1970년부터 1979년까지 <圖書館學> 제1집에서 제6집까지 부정기적으로 발표된 논문 수는 30편으로 학술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圖書館學>은 1978년부터 1988년까지는 꾸준히 연 1회씩 발행되었다. 1970년대는 도서관학 영역의 논문이 21편으로 정보자료 조직에 해당되는 분류나 목록과 관련된 연구가 9편이며, 일반적인 도서관 정보 봉로나 도서관학 교육, 사서의 전문직과 관련된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서지학 영역이 6편으로 고서에 대한 해석이나 형태에 대한 연구이며, 정보학 영역은 3편으로 도서관에서 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체제나 개념을 소개하는 정도였다.

한국비블리아학회는 1972년에 제1집 <한국비블리오> 그리고 제2집부터 <한국비블리아>로 변경하여 발행하였다. 1970년대는 3회에 걸쳐 1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논문 18편 중 도서관학 영역 9편에 대한 주제내용으로는 참고봉사, 도서선택법, 사서직, 도서관 이용지도, 대학

도서관 교육과정, 도서관법 등이며, 서지학 영역 역시 9편의 논문으로 사부분류, 간본해제, 장서해제 등의 주제가 연구되었다.

경북도서관협회가 1974년에 대구지역에서 창립되어 <圖書館學論輯> 제1집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78년에 학회 명칭을 한국도서관·정보학회로 개칭하였으며, 학회지명은 그대로 사용하다가 1999년부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로 변경하면서 권·호도 함께 변경하게 되었다. 1970년대는 제6집까지 발행하여 3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이 25편을 차지하였으며, 세부주제 내용은 참고정보봉사, 독서지도, 관중별 도서관봉사, 지정도서제도, 도서관학 교육 등이었다. 서지학 영역이 9편으로 다른 두 학회지와 비슷한 편수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정보학 영역은 정보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으로 1편에 불과했다.

3.4 1980년대: 3대 하위영역 도약기

1970년대가 도서관학 영역이 중심이 되어 서지학 영역이 공존하는 문헌정보학 학문영역 형성 및 학술활동의 태동기로 특징지어진다면, 1980년대는 기존의 3개 학회지에 <정보관리학회지>와 <서지학연구>가 새롭게 발행되면서 정보학 영역이 문헌정보학 하위영역으로 포함됨과 동시에 서지학 영역의 연구활동 역시 활발해지는 시기에 해당된다. 즉 문헌정보학 분야 학문영역이 도서관학과 서지학의 2대 하위영역에서 정보학 영역을 포함하는 3대 하위영역 형성과 더불어 연구활동의 도약기로 평가된다. 1980년대 연구활동은 전체 논문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도서관학 영역을 중심으로 소수의 연

구자에 의해서 꾸준히 연구된 서지학 영역과 새롭게 정보학 영역이 도입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5개 학회지에 게재된 279편의 논문 중 도서관학 영역이 144편(51.6%)으로 문헌정보학 학문영역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으며, 정보학 영역 82편(29.4%), 서지학 영역 53편(19.0%)으로 다소 낮은 비율로 분석되었다(〈표 3〉참조). 특히 1970년대 발행을 시작한 〈圖書館學〉, 〈한국비블리아〉, 〈圖書館學論輯〉은 논문 수의 증가와 동시에 다양한 주제내용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정보학 영역의 논문이 급속하게 증가한 가장 큰 요인은 1984년부터 〈정보관리학회지〉의 발행으로 6년간 73편의 논문 중 54편이 정보학 영역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정보검색 기법이나 시스템 설계, 온라인 탐색, 전문가시스템, 하이퍼텍스트 연구 등 컴퓨터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주제내용이 많이 연구되었다. 서지학 영역은 1986년부터 〈서지학연구〉가 발행되어 4년간 3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31편 모두 서지학 주제내용을 다루었다. 이러한 현상은 문헌정보학 분야 다른 학회지에 서지학 영역의 게재 비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재된 논문의 세부주

제는 전형적인 고문서나 문헌의 서지학적 해석과 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도서관학회의 〈圖書館學〉에 1980년대에 발표된 논문은 79편으로 1970년대 비교하여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도서관학 영역에 52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2/3 정도를 차지하였다.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분류 및 목록, 참고봉사, 장서관리 및 평가, 사서직 교육, 주제전문사서, 수서, 연속간행물, 상호대차, 비도서자료, 공공도서관 운영, 이용교육 등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내용이 연구되었다. 정보학 영역은 15편으로 1970년대 3편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세부주제로는 기계가독목록, 정보검색 효율성 측정 및 평가, 자동색인기법, 대학도서관 전산화, 학술커뮤니케이션 분석, 인용분석, 정보검색기법, 전문가시스템, 정보학 교육, 정보탐색 중개시스템 등 다양한 주제내용이 다루어졌다. 서지학 영역은 12편으로 고문서에 대한 분류 및 목록, 활자와 관련된 세부주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한국비블리아학회의 〈한국비블리아〉에는 1980년대에 2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10년 동안 3회에 걸쳐 도서관 영역 14편, 정보학 영역 3편, 서지학 영역 3편이 발표되었다. 도서관학 영역

〈표 3〉 1980년대 학회지별/하위영역별 논문주제 분석

| 시기 | 학회지 | 하위영역 논문 수 | | | | 계 |
|--------|---------|------------|-----------|-----------|---------|-----------|
| | | 도서관학 | 정보학 | 서지학 | 기록관리학 | |
| 1980년대 | 圖書館學 | 52 | 15 | 12 | 0 | 79 |
| | 한국비블리아 | 14 | 3 | 3 | 0 | 20 |
| | 圖書館學論輯 | 59 | 10 | 7 | 0 | 76 |
| | 정보관리학회지 | 19 | 54 | 0 | 0 | 73 |
| | 서지학연구 | 0 | 0 | 31 | 0 | 31 |
| | 계(비율) | 144(51.6%) | 82(29.4%) | 53(19.0%) | 0(0.0%) | 279(100%) |

은 목록, 도서관경영, 장서폐기, 독서지도, 학교 도서관, 전문도서관 경영, 대학도서관 건립, 도서관 상호협력, 자료보존 등의 세부주제가 연구되었다. 정보학 영역은 정보네트워크, 자동화시스템 설계, 정보검색시스템 평가 등 1980년 초반 대학도서관 자동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을 보여주었다. 서지학 영역은 고려대장경, 고문서 유형별 분류, 특정 문헌의 서지적 고찰 등 전통적인 서지학 연구로 이루어졌다. 서지학 영역은 1970년대에 9편과 비교하여 1980년대에 3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어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圖書館學論輯〉은 매년 6~9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76편이 발표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이 59편으로 2/3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정보학 영역 10편, 서지학 영역 7편이 게재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은 목록 및 목록규칙, 관중별 도서관 경영 및 운영연구, 국내외 도서관학 비교, 도서관법, 사서직 직무분석, 도서관 정보교육, 장서관리 및 폐기기준, 도서관 역사, 도서관 이용교육, 새마을 문고, 이용자연구, 자원공유, 시각장애인 도서관 봉사, 학위논문, 독서교육 등 1970년대보다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정보학 영역은 정보이론인 브래드포드 분산법칙, 도서관자동화, 자동분류 및 자동색인, 정보네트워크 시스템, 온라인정보검색시스템, 이용자편의시스템 모델 등 1970년대 1편에서 괄목할 변화를 보였다. 서지학은 고려 비서성 연구, 지리지고에 대한 고찰, 중국불교전적분류, 조선후기 서적간행, 고려속장경 등이 연구되었다.

한국정보관리학회는 1984년에 창립과 동시에 〈정보관리학회지〉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1984년

에는 1회, 1985년부터 1997년까지는 연 2회 발행하였다. 1980년대는 11회 발행되어 7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학회지 발행 취지에 따라 정보학 영역의 연구가 54편으로 74%를 차지하였다. 세부주제 내용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검색 기법, 정보검색시스템 설계, 온라인탐색,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동색인기법, 자동분류, 계량정보 관련 연구, 정보관리 자동화, 전문가시스템 등 컴퓨터와 정보기술을 응용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특정 영역의 정보검색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과 관련된 연구나 OPAC, 온라인탐색, 하이퍼텍스트 연구 등 첨단 기술이 응용된 연구가 발표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은 19편의 논문에서 이용자연구의 동향, 지적소유권, 주제전문사서, 도서관 기준, 도서관 조직 관리 등 다른 학회지와 유사한 세부주제 내용이 게재되었다.

한국서지학회는 2013년에 (구) 한국서지학회와 서지학회가 통합하여 새로 출범하게 되었다. (구) 한국서지학회는 학술지 〈書誌學報〉를 1990년에 창간하여 2012년 제40호까지 발간하였으며, 두 학회의 통합으로 〈書誌學報〉는 중단하게 되었다. 서지학회는 1985년에 창립하여 1986년에 〈서지학연구〉 제1집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학술활동이 이루어진 〈서지학연구〉를 대상으로 세부주제 내용을 분석하였다. 〈서지학연구〉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는 연간, 1997년 제13집부터 2003년 제26집까지는 반 년간, 2004년 제27집부터 2013년 제56집까지는 연 3회간, 그리고 2014년 제57집부터는 계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회에 3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모두 서지학과 관련된 주

제로 문헌간행사, 가각고, 조선시대 고문서관리, 고려초 대장목록, 활자연구, 사분법, 지방간행물 연구, 칠정산 내외편, 규장각의 사서직 임무, 책의 기원 및 명칭, 조선시대 목판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3.5 1990년대: 3대 하위영역 성장기

199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이 시작된 지 30년이 경과되면서 전국의 40여 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혹은 도서관학과, 문헌정보과) 교수와 국내외에서 배출된 새로운 학자 및 연구자들의 꾸준한 증가로 연구 인력의 수가 크게 확대되었다. 동시에 국내 많은 대학에서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술논문 게재를 제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논문생산의 증가에 따라 학회지 발행을 계간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96년부터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계간으로 발행되었으며, 이어서 1999년부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가 계간으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서지학연구>도 1997년부터 연2회 발행하게 되어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한국문헌정보학회 연구자들이 1990년대에 5개 학회지에 920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활발한 성장기를 구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학 영역 400편(43.4%), 정보학 영역 302편(32.8%), 서지학 영역 212편(23.1%)으로 1980년대 형성된 문헌정보학 3대 하위영역의 연구활동이 견고하게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 참조). 기록관리학은 6편(0.7%)이 연구되어 문헌정보학의 하위영역으로 포함되기는 시기적으로 이른 상태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시기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 5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수의 증가 비율이 1980년대에 비하여 3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학회지별 논문 수의 증가도 2~5배에 달했다.

한국문헌정보학회는 1992년에 한국도서관학회를 한국문헌정보학회로 학회 명칭을 개칭함에 따라 1993년 초에 학회지명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로 변경되었다. 1989년부터 반 년간으로 발행하여 왔으나 연구자들의 논문 게재 요구 증가로 1996년부터 계간으로 발행함에 따라 연구자들이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기회가

<표 4> 1990년대 학회지별/하위영역별 논문주제 분석

| 시기 | 학회지 | 하위영역 논문 수 | | | | 계 |
|--------|---------------|------------|------------|------------|---------|-----------|
| | | 도서관학 | 정보학 | 서지학 | 기록관리학 | |
| 1990년대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170 | 84 | 24 | 0 | 278 |
| | 한국비블리아 | 27 | 16 | 3 | 0 | 46 |
|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166 | 43 | 21 | 5 | 235 |
| | 정보관리학회지 | 35 | 159 | 0 | 0 | 194 |
| | 서지학연구 | 2 | 0 | 164 | 1 | 167 |
| | 계(비율) | 400(43.4%) | 302(32.8%) | 212(23.1%) | 6(0.7%) | 920(100%) |

* 圖書館學이 1993년부터 한국문헌정보학회지로 개명됨.

** 圖書館學論輯은 1999년부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로 개명됨.

많아졌다. 아울러 그 동안 “집(輯)”으로 표기되던 일련번호를 “권(卷) 호(號)”로 변경하게 되었다. 초창기에 비하여 연간 학회지 발행회수는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매호마다 게재된 논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28회에 27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학회지 1회당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1980년대 도약 단계에 1회당 7편에 비하여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학 영역에 170편(61.2%)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도서관 경영과 조직 유효성, 분류체계 및 목록규칙, 참고봉사 평가, 사서직 교육, 상호대차, 공공도서관 평가지표, 대학도서관 평가, 도서관기호법, 독서교육 등 다양한 내용이 연구되었다. 1980년대와 비교하여 전통적인 분류와 목록, 사서직 교육, 상호대차, 도서관 운영 등은 유사한 주제내용이었으며, 특히 1990년대는 도서관 관중별 평가와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정보학 영역은 84편으로 1970년대 3편, 1980년대 15편에 비하여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자동목록시스템, 색인시스템, 정보탐색행위, 정보검색시스템 설계, 정보검색 효율성 측정, 디지털도서관 설계 및 구축, 최종이용자 검색시스템, 인터넷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평가, 이용자 인터페이스, 웹 기반 전문검색시스템, 인용분석, 계량정보 등 논문 수의 증가와 동시에 매우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었다. 1990년대는 전문정보시스템 설계나 구축, 정보검색에 대한 효율성과 성능평가, 디지털도서관 모형 및 설계, 웹 기반 정보검색평가 등에 대한 주제내용이 많이 연구되었다. 서지학 영역은 24편으로 고문서에 대한 서지적 해석, 총독부 문서관리, 활자인쇄 연구, 사부분류법, 조선

초 지방간본 등이 연구되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에서는 1990년대에 <한국비블리아>를 4회 발행하였다. 게재된 논문 수는 46편으로 1980년대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여 도서관학 영역 27편, 정보학 영역 16편, 서지학 영역 3편이 발표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은 초록작성, 도서관 협력, 직무교육, 문헌전달 능력, 도서관 교육, 참고정보봉사, 장서관리, 정보이용교육, 아동문고, 독서교육 및 활동, 도서관 조직, 도서관 후원 등 1980년대와 비슷한 유형의 주제가 연구되었다. 정보학 영역은 15편으로 인용분석,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컴퓨팅, 데이터베이스나 인터페이스 설계, 인터넷 탐색 엔진, 웹 DB 및 웹 OPAC, 디지털도서관, 웹 기반모델 설계 등 정보학의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1980년대는 주로 대학도서관 환경에서 필요한 정보네트워크, 자동화시스템 설계, 정보검색시스템 평가 등 기본적인 인프라에 관련된 연구와 대조를 보였다. 서지학 영역은 1980년대와 비슷한 내용으로 고려대장경, 묘법연화경 등 고문서의 서지적 고찰이 중심이 된 전통적인 서지학 연구로 3편이 발표되었다. 전체적인 논문 게재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서지학 영역의 게재 논문 수는 증가가 없었으며, 1970년대에 9편에 비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16회, 235편의 논문으로 1회당 15편이 게재되어 1980년대 매회 6~9편에 비하여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도서관학 영역 166편(70.6%), 정보학 영역 43편(18.3%), 서지학 영역 21편(9.0%), 기록관리학 영역 5편(2.1%)

이 게재되었다. 1994년까지는 연 1회 발행하였으나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반 년간, 1999년부터 학회지명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로 변경하면서 일련번호도 함께 권·호로 변경하여 계간으로 발행하게 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의 세부주제는 문헌정보학 교육, 저자기호표, 서지기술형식, 참고봉사, 정보서비스 평가, 장서관리 및 평가, 도서관 조직 리더십, 사서의 직무스트레스, 도서관 발전계획, 공공도서관 마케팅 및 경제성 평가, 대학도서관 시설기준 및 서비스 품질평가, 학교도서관 자료기준, 전문도서관 마케팅, 주제전문사서 제도, 전문직 계속교육, 분담목록, 정부간행물 유통체계, 정보윤리의식 등 논문의 증가에 따라 주제내용도 매우 다양한 경향을 보였다. 정보학 영역의 논문은 1980년대 10편에서 43편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세부주제로는 브라우저 검색, 자동화목록, 하이퍼텍스트 정보검색, 전문가시스템 설계, 데이터베이스 품질평가, 전자도서관 구현, 정보탐색모형 구축, 디지털도서관 구축, OPAC시스템 인터페이스,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메타엔진검색 효율성 평가, 이용자 인터페이스, 대학도서관 자동화 평가, 전문학술정보시스템 구축, 웹 기반 정보원 구축 등 ICT기술을 응용하여 각종 정보서비스를 구현하는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서지학 영역은 21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1980년대와 비슷한 비율로 분석되었다. 세부주제로는 고전자료실 운영, 고려인물연구, 사부주제, 조선시대 구급의서, 광해군의 문예진흥, 삼국시대 서지학, 서목답문 분류, 구결자료 서지적 연구, 해인사 소장책본, 고서검색시스템 등이 연구되었다. 기록관리학 영역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처음으로 5편이 게재되었는데, 주

요 내용으로는 정부기록보존제도, 기록보존사서 교육, 기계가독형 기록물관리 방법, 대학보존 기록물관리, 기록물 보존기법 등이 연구되었다.

한국정보관리학회는 1990년대에 〈정보관리학회지〉를 23회 발행하여 194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특히 도서관학 영역 35편과 정보학 영역 159편으로 서지학과 기록관리학 영역은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정보학 관련 연구자의 증가에 따라 학회지는 1998년에 연 3회, 1999년부터는 계간으로 발행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은 35편(18%)으로 주요 세부주제로는 도서관 교육 및 기능, 정보접근, 사서역할 및 전문성, 비도서자료, 정보봉사, 지역정보자료, 표목 기능, 분류유형, 저작권, 도서관 조직, 목록 이론, 민간위탁, 분류표, 조직구조 유효성, 장서평가 등이다. 정보학 영역은 159편(82%)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외국에서 연구한 학자들이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자리를 잡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정보학 연구와 유사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세부주제로는 인터페이스 설계, 정보가치 이론, 정보학 성격 규명, 다양한 검색기법, 전문가시스템, 지식기반시스템, 자동색인 및 자동초록, DB구축, KORMARC, OPAC 및 하이브리드 종합목록, 지능형 검색시스템, 정보검색 프로토콜, 정보네트워크, 인용분석, 이용자 컴퓨터 인터페이스, 온라인 탐색전략, 인터넷 자원, HCI, HTML, 하이퍼미디어시스템, 멀티미디어시스템, 디지털도서관, 이미지검색 시스템, 메타데이터 변환, 시소러스시스템 및 구축, 적합성 피드백, 전자참고서비스시스템 등이 연구되었다.

서지학회의 〈서지학연구〉는 1990년대에 14회

에 16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학회지 특성상 164편(98.2%)의 논문이 서지학 영역의 다양한 내용으로 연구되었다. 세부주제 내용으로 고문헌의 해제와 서지, 조선역학서의 판종과 활자, 한의학 서지 및 해제, 삼국사기 연구, 고서색인, 고서목록 판본기술, 판식기술, 동서양 서지연구, 고서해제의 유형, 고서목록 기술사항, 고인쇄문화, 조선왕조실록, 한국서지학 연구 경향, 고향자본, 개화기 서적, 조선 활자체, 제지술, 고서 디지털화 및 색인, 팔만대장경, 월인석보, 향약의서, 고려 금속활자, KORMARC고서용 및 기술규칙, 고서자동화목록형식, 불교전적 분류 등이 연구되었다. 도서관학 영역 2편은 정보자료 보존대책과 서지교육 사서-교수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연구였다. 그리고 기록관리학 영역의 1편은 미국문서관 현황에 대한 연구로 분석되었다.

3.6 2000년대: 4대 하위영역 정립기

2000년대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6개 학회지가 모두 정기적으로 발행되었으며, 가장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진 시기임과 동시에 4대

하위영역인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이 정립되는 시기로 분석되었다. 10년 동안 6개 학회지에 2,662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1990년대 3대 하위영역의 성장기를 한층 더 발전시킨 황금기를 구축하게 되었다. 6개 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은 <표 5>와 같이 도서관학 영역 1,329편(49.9%), 정보학 영역 727편(27.3%), 서지학 영역 384편(14.1%), 기록관리학 영역 222편(8.4%)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록관리학 영역이 2000년대부터 하위영역으로 연구활동이 시작되어 다른 하위영역에 비하여 게재 논문 수의 차이가 크지만 매우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2000년대는 1990년대에 비하여 3배 정도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완전하게 계간으로 40회 발행되어 607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도서관학 영역 440편(72.5%), 정보학 영역 130편(21.4%), 서지학 영역 11편(1.8%), 기록관리학 영역 26편(4.3%)로 분석되었다. 학회지 1회당 게재된 논문의 수를 비교하면 1980년대 7편에서 1990년대 10편으로 2000년대는 15편 이상으로 분석되어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표 5> 2000년대 학회지별/하위영역별 논문주제 분석

| 시기 | 학회지 | 하위영역 논문 수 | | | | 계 |
|--------|-------------|--------------|------------|------------|-----------|-------------|
| | | 도서관학 | 정보학 | 서지학 | 기록관리학 | |
| 2000년대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440 | 130 | 11 | 26 | 607 |
|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194 | 56 | 3 | 17 | 270 |
|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560 | 125 | 38 | 10 | 733 |
| | 정보관리학회지 | 125 | 412 | 1 | 23 | 561 |
| | 서지학연구 | 9 | 1 | 322 | 5 | 337 |
|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1 | 3 | 9 | 141 | 154 |
| | 계(비율) | 1,329(49.9%) | 727(27.3%) | 384(14.4%) | 222(8.4%) | 2,662(100%) |

* 한국비블리아가 2005년부터 한국비블리아학회지로 개명됨.

도서관학 영역의 세부주제로는 공공도서관 관련 서비스 평가 및 효과성, 서비스품질 인증 제도, 평가지표 및 경제적 가치, 장애인서비스, 매체이용, 문화프로그램, 운동사 등이며, 대학도서관 관련 주제별 참고봉사, 서비스 질 평가, 조직유효성, 가치 측정 및 효율성 평가, 해외학술지 비용효과분석, 발전방안 등이며, 그 외 학교도서관 운영 및 멀티미디어화, 정보교육 및 정보활용능력, 사서교사 직무분석, 전문도서관 참고봉사 및 평가지표, 독서운동 및 독서치료, 사서직 계속교육, 전문성 및 자격제도, 정보취약계층 봉사, 다문화가정 서비스, 북한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관련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0년대는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물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가치 측정, 다양한 이용자 계층에 대한 정보서비스 등 한층 더 구체화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정보학 영역은 130편의 논문으로 1970년대 3편, 1980년대 15편, 1990년대 84편에 비하여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세부주제로는 인터넷 검색엔진 평가, 정보검색시스템 설계, XML 표준문서관리시스템 설계, 전자도서관 구축, 전자도서관 웹DB 품질평가 및 사이트 평가, 디지털도서관 구축,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웹 정보서비스 평가, 웹 자원 이용효율성 측정, 이용자 계층별 정보탐색행위, 통합유저 인터페이스, 온라인 서지DB 만족도, 과학기술분야 DB품질 평가, 메타데이터 설계, 정보시각화 스키마 구축, 인용정보 자동추출 등 1990년대와 비슷한 유형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서지학 영역은 11편으로 1990년대 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지학 연구>의 발행회수 및 논문의 대폭적인 증가로 서지학 관련 연구자들의 논문 게재 학회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 수 있다. 세부주제로는 고문헌 디지털화 방안, 전래동화 서지적 고찰, 양주지역 불서간행 연구, 삼존불상 해석, 해외소장 고문헌 데이터베이스화 등이 연구되었다. 기록관리학 영역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처음으로 26편이 게재되었다. 2000년 이전까지는 기록관리학 영역의 논문이 전혀 게재되지 않았으나, 1999년 1월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한국문헌정보학계에서 기록관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논문 게재가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민간기업 기록보존 시스템 개발, 기록물 등록정보 활용방안, 대학원 기록관리학 교과과정, 기록학 교육 프로그램, 중국 기록물 검색분류, 전자기록관리, 디지털 아카이빙, 아카이브 운영방법, 레포지터리 적용방안, 기록물관리 기술요소, 전자기록물 보존매체관리, 기관레포지터리 메타데이터 확장, 전자기록물 이관절차, 기록정보 서비스, 준현용 기록물관리 표준화,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영역 및 연구동향 분석 등이 연구되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의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1970년대 3회에 18편, 1980년대는 3회에 20편, 1990년대는 4회에 46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되면서 부정기적으로 발행되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발행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계간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2005년부터는 <한국비블리아>에서 <한국비블리아학회지>로 학회지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0년대는 22회에 27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도서관학 영역 194편(71.9%), 정보학 영역 56편(20.7%), 서지학 영역 3편(1.1%), 기록관리학 영역 17편(6.3%)이 발표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은 공공도서관 관련 연구로 지역정보봉사, 협력망 평가, 학교도서관 협력방안, 관장의 자질, 운영평가, 문화프로그램 등이며, 대학도서관 관련 연구로는 디지털 참고봉사, 서비스 고객만족도, 이용자교육, 정보활용능력, 평가기준 등이 주요 내용이며, 그 밖에 학교도서관 이용교육과 활성화 및 평가지표, DDC 전개 확대, 장서개발 정책, 정보전문직 역할, 주제전문사서 도입 방안, 독서생활화 및 운동, 독서프로그램 및 활성화, 독서효과, 독서자료 선정 효율화, 독서평가도구, 독서교실 운영방안 등 2000년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정보학 영역은 인용분석, 전자자원 저작권 관리 등 정보이론, 웹 기반 대학도서관시스템 구축, 검색효율 제고 방안, 통합정보망 구축모형, 이미지검색시스템 성능비교,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등 정보공학, 전자정보서비스 이용자 인터페이스, 전자도서관 설계, 초록DB 구축, 디지털 콘텐츠 메타데이터, 오픈엑세스 구축, 유비쿼터스도서관, 웹 학술정보 주제게이트 구축, 웹 기반 전자원문관리시스템, 문화콘텐츠 웹 사이트 평가, 시멘틱 디지털도서관 설계, 하이브리드도서관 모형 구축 등 정보자동화, 정보이용행태 연구, 웹 정보서비스 이용자교육 등 주로 정보공학과 정보자동화 세부주제 내용이 많이 연구되었다. 서지학 영역은 1980년대,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3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어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는 서지학 영역의 연구논문이 거의 발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세부주제 내용으로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한국전적 서지적 연구, 조선시대 독서론, 고문헌 관련 전문도서관 건축 설계 등으로 조사되었다. 기록관리학 영역은 〈한국비블리아학회

지〉에 처음으로 게재되었으며,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미국주립기록보존소 제도, 전자기록물 관리방안 및 관리정책, 행정기관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요소, 지방자치단체 자료관 설립 방안, 기록물 생산자 전거제어, 기록물 전거레코드,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협력형 레포지터리 평가 요소 등 전형적인 기록관리학 영역의 주제를 다루었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2000년대에 40회 발행하여 733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매회 18편 이상으로 1990년대의 15회보다 증가하였다. 하위영역별로는 도서관학 영역이 560편(76.4%)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정보학 영역 125편(17.0%), 서지학 영역 38편(5.2%), 기록관리학 영역 10편(1.4%)으로 도서관학 영역과 정보학 영역이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은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도서관 역할, 사서의 역할 변화, 도서관 불안연구, 공공도서관 장서개발, 독서교육 및 독서치료, 외국학술잡지 공동이용, 목록과 목록기술규칙 변천 과정 및 개선, 공동목록시스템 품질평가, 공동편목협력, 편목업무 아웃소싱, 백진분류법 구조, 어린이 도서분류, 도서관 운동, 도서관 관리자 페러다임, 경영혁신, 공공도서관 서비스 고객만족도, 공공도서관 평가지표, 공공도서관 홍보전략,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대학도서관 주제전문 서비스, 대학도서관 평가지표,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대학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학교도서관 발전 전략, 학교도서관 활성화, 법학도서관 제도화, 전문도서관 협력, 북한도서관 연구, 국가보존도서관 운영 등 매우 다양한 연구

가 게재되었으며, 특히 관중별 봉사 및 운영과 정보자료의 조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학 영역의 논문은 1990년대 43편에서 125편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정보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저자동시인용 분석, 영상정보기록 인식기술, 전자데이터베이스 개발, 통합DB 포맷비교, 인지능력과 정보검색 성능, 지식관리시스템 모형 구축, 토픽맵 검색시스템, 멀티미디어 전자책 효용성 평가, 전자정보 검색시스템, 한글시소러스 브라우저 구축, 인터넷기반 참고질의 서비스 구축, 자동분류,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 연구, 대학도서관 자동화 개선방안, 검색표준 인터페이스 설계, 웹 문서 클러스터링 성능연구, 오픈엑세스, 디지털도서관 통합검색, 웹 기반 도서관시스템 이용자 교육, 웹 탐색이용자 품질 평가 및 효용성 평가, 웹 콘텐츠관리시스템 구축, 웹 사이트 신뢰성 평가, 이용자기반 정보접근시스템 구축 등 정보공학, 정보자동화, 정보이용자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서지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은 동국역대총목 서지 연구, 무구정광다라니경 연구, 윤방의 문헌적 고찰, 고려대장경 판각연구, 오천정사 집서고, 고활자명 연구, 조선시대 해제목록 특성 연구, 판각 연구, 흥연명 지식연구, 고문헌 보존처리 방안, 규장전운 연구, 한문본 대학 판본 연구, 연행록 연구, 고려초조대장경 분류체계, 임원십육지 농학분야 연구, 설화지 연구, 화엄경 교정 흔적 연구, 전통 목 제조법, 김인후의 독서관 연구, 동몽선습 저자연구, 공신록 연구 등이 연구되었다. 기록관리학 영역의 주요세부 내용으로는 대학기록보존소 기능, 대학 아카이브즈, 캐나다 기록대학원 프로그램 연구, 중국 기록물 정리분류

원칙,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 기록관리전문가 실무능력 프로그램 등이 연구되었다.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정보관리학회지>는 2000년대에 561편의 논문이 게재 되었으며, 그 중 412편(73.4%)이 정보학 영역으로 1990년대에 159편 비하여 2.6배의 증가를 보였다. 2000년대는 정보학 영역의 연구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논문 수의 증가는 물론 연구자의 증가로 정보학 영역 연구의 황금기로 볼 수 있다. 한국정보관리학회(2009)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영문학술지가 발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2006년부터 연 1회에 매년 제2호에서 영문으로 발행되었다. 그 후 영문학술지는 2012년부터 영문 논문의 부족으로 한글과 영문을 혼합하여 발행하고 있다.

도서관학 영역은 125편(22.3%)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주제내용으로는 교육과정, 직무만족, 연속간행물 관리, 대학도서관 조직, 평가지표, 장서개발, 전문도서관 서비스, 비교분류, 회색문헌, 저작권, 도서관 사상, 협력수업, 학술지 평가모형, 학위논문 공동이용, 사서직 윤리규정, 도서기호법, 상호대차, 도서관 신축, 공공도서관 자원봉사, 도서관 불안이론, 공공도서관 서비스 품질평가, 전략적 경영, 원문정보서비스 평가모형, 참고정보원 평가, 도서관 마케팅, FRBR 목록, 북한도서관, 병영도서관, 국제표준 등 다양한 세부주제가 연구되었다. 정보학 영역은 412편(73.4%)이 게재되었으며, 세부주제 내용은 계량정보, 검색시스템 개발, 웹 사이트 구축, 검색 효율성 측정, 자동화시스템 구축, 메타검색 색인, OPAC인터페이스, 전자저널 활용 및 개발 모형, 지능형 정보검색, 지식정보 디지털화, 정보추구행위 모형개발, 인터넷 서비스, 웹 사이

트 평가모델, 지식콘텐츠 관리 및 설계, 하이브리드 정보서비스모델, 웹 인터페이스, 디지털도서관, 메타데이터, 하이브리드도서관, 시멘틱 웹, 온토로지 웹 검색, 색인시스템, 웹 기반 정보검색, 정보시스템 만족도 측정, 텍스트마이닝, 디지털도서관 통합모형 등 매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서지학 영역은 1편으로 국학고전자료 디지털화 연구에 관련된 주제였다. 기록관리학 영역에서 2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세부주제 내용은 기록물 정보관리, 기록물 기능분류 체계,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 진본성, 기록관리 통합서비스, 전자문서 유통, 대학기록물 관리, 학술기관레포지터리 운영 및 활성화, 전자기록물 검색시스템 설계, 장기기록보존물 평가,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개념, 기록정보서비스,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등이 연구되었다.

서지학회의 <서지학연구>는 서지학 영역의 연구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이 게재되었다. 전체 연구논문 337편 중 서지학 영역이 322편이며, 도서관학 영역 9편, 정보학 영역 1편, 기록관리학 영역 5편으로 분석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은 초등교사 정보이용 인식, 일제시대 저작권 제도, 문헌형태 비평가사 분석, 학술지 서평 성격 분석, 대학생의 독서매체 활용 및 독서태도, 도서관 서평, 도서심의제도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정보학 영역은 유일하게 유비쿼터스 시대 e-book에 대한 연구가 게재되었다. 서지학 영역은 전통적으로 고문헌의 해제 및 서지학적 연구, 간행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그 외에 고향자명, 판본 선별, 고문서 목록작성, 직지문화 연구, 금속활자 및 밀랍 주조법, 사가독서, 고문서 목록 표준화, 한글 활자,

규장각 서적 보관제도, 서원문고 및 판본, 사부 분류법, 조선시대 보존도서관, 조선시대 검서관의 역할, 목관인쇄문화, 고서용 KORMARC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록관리학 영역은 기록물관리 단위업무 역할, 미국·영국·호주 지방기록보존소 간행물, 민간기록물 수탁 보존기구,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록물 전거레코드 설계, 중앙행정기관 필수기록물 지정 등이 게재되었다.

한국기록관리학회가 2000년 7월에 창립하여 2001년부터 <한국기록관리학회지>가 발행되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 2회, 2012년과 2013년은 연 3회, 2014년부터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2001년부터 9년간 18회 발행하면서 154편의 논문 중 141편(91.6%)이 기록관리학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은 1편으로 정보관리를 위한 지식경영에 관련된 주제였으며, 정보학 영역은 3편으로 과학기술 종합지식 경영시스템 구축, 디지털도서관 관련 연구 및 디지털도서관 웹 자원과 관련된 논문이 게재되었다. 서지학 영역은 9편으로 월인석보 보존처리, 고문서 종이 분석, 익안대군 문헌해제, 표범연화경, 구분화엄경, 염지보존성 등 고문서의 해제나 서지적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기록관리학 영역은 매우 다양한 주제내용으로 기록관리와 관련된 개념 및 관리방법, 교육, 정보서비스 등 학문영역의 도입기에 해당되는 연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논문의 세부 주제내용으로는 기록관리전문가 양성교육,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전자문서 관리방안 및 관리시스템, 장기보존 방안, 전자문서 영구보존 표준화, 디지

털 아카이빙, 마이그레이션 전략, 기록관리행정,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기록관리기관의 정보봉사, 기록정보서비스 방안 및 평가, 기록관리 평가제도,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설립 운영, 대학아카이브즈, 대학기록물 수집정책, 국가별 기록관리제도 연구, 기록관리정책, 기록물 관리 법규, 기록물 전거레코드, 기록물 접근도구, 국가기록관 표준, 기록물 분류 체계 및 기준표 등이 게재되었다.

3.7 2010년대: 4대 하위영역의 황금기 지속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 학회지에 1,971편이 발표되어 연평균 논문 수에서 2000년대의 266편에서 2010년대 329편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6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표 6>과 같이 도서관학 영역 1,070편(54.3%), 정보학 영역 411편(20.8%), 서지학 영역 293편(14.9%), 기록관리학 영역 197편(10.0%)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대는 2000년대와 유사한 주제를 계속 연구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경향을 보였다.

한국문헌정보학회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2010년 제44권제1호부터는 발행일자를 매분기 말보다 1개월씩 앞당겨 2월, 5월, 8월, 11월 말에 발행하게 되었다. 이는 많은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자의 학술연구 실적 평가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하고 있어 평가시점의 차이에서는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421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도서관학 영역 327편(77.7%), 정보학 영역 68편(16.1%), 서지학 영역 16편(3.8%), 기록관리학 영역 10편(2.4%)으로 분석되었다. 학회지 1회당 게재된 논문의 수를 비교하면, 1980년대 7편에서 1990년대 10편, 2000년대 15편, 그리고 2010년대는 18편 이상으로 분석되어 2000년대 이후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이 계속적으로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도서관학 영역의 세부주제로는 2000년대와 유사하게 다양한 내용이 연구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많이 연구되었던 공공도서관 서비스평가와 서비스품질, 경제적 가치, 독서교실, 장애인서비스, 문화프로그램, 대학도서관 가치 측정, 학교도서관 운영 방안, 학교도서관 정보교육 및 정보활용능력 교육, 전문도서관 평가지

<표 6> 2010년대 학회지별/하위영역별 논문주제 분석

| 시기 | 학회지 | 하위영역 논문 수 | | | | 계 |
|--------|-------------|--------------|------------|------------|------------|-------------|
| | | 도서관학 | 정보학 | 서지학 | 기록관리학 | |
| 2010년대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327 | 68 | 16 | 10 | 421 |
|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264 | 74 | 4 | 17 | 359 |
|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347 | 60 | 14 | 10 | 431 |
| | 정보관리학회지 | 123 | 209 | 0 | 7 | 339 |
| | 서지학연구 | 9 | 0 | 259 | 0 | 268 |
|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0 | 0 | 0 | 153 | 153 |
| | 계(비율) | 1,070(54.3%) | 411(20.8%) | 293(14.9%) | 197(10.0%) | 1,971(100%) |

표, 독서치료,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정보취약 계층 정보봉사 등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연구되었다. 2010년대에 새롭게 연구된 세부주제로는 공공도서관 공간 및 시설 기준, 공공도서관 어린이 및 청소년 서비스,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와 홍보, 이동도서관 서비스 기준,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아웃리치서비스, 정보리터러시, 지역대표도서관, 목록규칙 방향성, 독서문화 콘텐츠 개발 등으로 조사되었다. 정보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멀티미디어 정보검색, 이미지자료 시멘틱검색, 메타데이터 구축 및 요소 개발, 웹 이용자 평가, 정보자원 디지털화,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 구축, 전자도서관 품질평가, 정보추구모형 설계, 과학기술논문 인용속도분석, 협력네트워크시스템 구축, 정보탐색과정 적합성 평가 등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정보학 영역과 유사한 연구논문이 게재되었다. 서지학 영역의 주요 세부주제로는 고려초조대장경 각판 및 가치 연구, 공신록권 서지적 연구, 규장총목 목록기술방식 연구, 금속활자본 불교서적 서지적 연구, 사소절 연구 등이 연구되었다. 기록관리학 영역의 세부주제로는 교수아카이빙 저작물관리, 대통령기록물 분류기준, 대학기록관 레포지터리 연구, 기록물 생애주기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기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이 연구되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의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6년 동안 24회에 359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도서관학 영역 264편(73.6%), 정보학 영역 74편(20.6%), 서지학 영역 4편(1.1%), 기록관리학 영역 17편(4.7%)로 4대 하위영역별 게재 비율이 2000년대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은 주제전문사서 활성화, 정리

사서 전문성, 어린이전문사서, 사서교사 자격제도, 장서개발정책, 전자책 수서모형, 독서프로그램, 독서치료, 이용자 만족도 분석, 정보취약계층, 이용자 프라이버시, DDC 분류체계, 패킷분류, KDC 주기분석,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공간구성, 다문화서비스, 작은도서관 운영, 대학도서관 효율성 평가, 고객관계관리, 모바일서비스, 학교도서관 기준, 교회도서관, 병영도서관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참고정보봉사 및 서지서비스와 관종별 봉사 관련 주제 내용이 많이 연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학 영역은 인용분석, 지적구조 분석, 시멘틱 웹 정보검색,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인용DB 측정, 빅데이터 활용 방안, 디지털도서관 이미지 검색, 메타데이터 항목, 웹 기반 OPAC 평가, 웹 사이트 콘텐츠 및 접근성 분석, 웹 검색엔진 인터페이스, 웹 이용자 연구, 오픈액세스 특성 연구, 디지털도서관 e-서비스, 디지털도서관 평가기준, 하이브리드 디지털도서관 설계, 주제별 이용자 정보이용행태 등 정보공학과 정보자동화와 관련된 세부주제 내용이 많이 연구되었다. 서지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으로 조선시대 자치통감강목, 고려대장경 디지털화, 조선시대 도가서적 연구 등으로 조사되었다. 기록관리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기록관리 인력의 전문성, 기록관료인식, 연구기록물 수집개선 방안,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 공기업의 기록관리방안, 기관레포지터리 연구,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 설계, 대통령기록물 교육프로그램, 민간기록물 관리방안, 국립대학교 기록관리 현황 등이 연구되었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한국도서관·정보

학회지)는 6년 동안 24회 발행되어 43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하위영역별로는 도서관학 영역 347편(80.5%), 정보학 영역 60편(13.9%), 서지학 영역 14편(3.3%), 기록관리학 영역 10편(2.3%)으로 도서관학 영역과 정보학 영역이 9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은 정보활용 교과과정 모형, 사서교사 평가지표, 사서의 직무만족도, 차세대 목록 연구, 한국목록규칙 개선 방향, 자료조직분야 연구동향, 공공도서관의 자료선정, 서비스 활성화와 직원배치 기준, 마케팅 전략, 다문화 서비스 및 장애인 서비스, 효율성 분석, 상호협력 활성화, 건강정보서비스, 공동보존서고, 독서교육 지원시스템, 독서치료 프로그램, 이용자교육, 대학도서관 서비스 품질 측정, 학교도서관 교육적 효과 및 평가지표, 도서관 경영기법, 저작권 문제, 작은도서관의 장서개발 및 발전방향, 국립도서관 운영전략, 법학전문도서관 평가 조항 등이 연구되었다. 정보학 하위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원문정보서비스 협력 네트워크, 메타데이터 통합 프레임워크 구축, 포털 통합검색 평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논문 메타데이터 요소개발, 웹 아카이브 콘텐츠 분석, 웹 탐색 성능평가, 통합색인 품질평가, 차세대 OPAC 기능,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측정 모형 및 고객만족도, 모바일 기반 정보탐색행위, 학술연구자 정보이용행태 분석 등이 연구되었다. 서지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공신록권 및 개인의 도서에 대한 서지적 연구, 조선시대 나주 인쇄문화, 규장각 도서연구, 조선시대 전남지역 출판문화, 삼존불 전적연구, 삼국시대 서적유통, 삼분화엄경 판본 연구, 조선시대 읍지 연구, 조선 후기 영

남문집 목판본 연구, 북송초기 불교문헌 연구 등으로 조사되었다. 기록관리학 하위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로컬리티 기록물 콘텐츠 개발, 연구데이터 기록관리, 기록관리분야 네트워크, 통합형 지방교육기록물 관리기관 연구, 도시기록화구성요소, 기관레포지터리 수용 영향 요인 연구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정보관리학회지>는 24회 발행에 339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도서관학 영역 123편(36.3%), 정보학 영역 209편(61.6%), 서지학 영역은 게재되지 않았으며, 기록관리학 영역은 7편(2.1%)으로 대부분이 정보학과 도서관학으로 분석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은 강의별 학술정보, 장서관리 정책, 정보공유, 사서직 직무 및 역량분석, 도서관 목록 비교, DDC 수정 전개, 어린이도서관 분류, 분류체계 개선, 목록법, 도서관호 개선 방안, 주제명표목 개선, 서지표준화, 공공도서관 독서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공간 설계, 독서치료, 공공도서관 비이용 요인, 국회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도서관 R&D정책,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LibQual+, 도서관경영, 저작권, 국제표준이름식별자, 국내외 독서교육 등이 연구되었다. 정보학 영역의 세부주제로 온라인 정보원 신뢰지수, 오픈엑세스, 학술DB 인용패턴, 검색 성능평가, 정보학 연구추이 분석, 토픽맵, 이용자인터페이스, 메타서치시스템, 웹 정보탐색행위, 토털사이트 연계, 의미기반지식구조, 디지털도서관협력, 네트워크 텍스트분석, 이용자 적합성 평가, 정보 적합성 판단, 온톨로지, 언어 네트워크 분석,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 개발 등이 연구되었다. 기록관리학 영역의 세부주제로는 리포지터리 운영정책 및 수용, 대학기록관

의 웹 사이트 분석, 대학기록관 이용자 인식, 기관레포지터리 운영모형, 공공기록 생애주기 비용분석, 의무기록관리 개선 방안 등이 연구되었다.

한국서지학회의 <서지학연구>는 6년 동안 268편의 논문에 게재되었으며, 그 중에서 259편(96.6%)이 서지학 영역, 도서관학 영역 9편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은 여성의 독서형태와 특징, 독서문화 활성화 연구, 어린이 독서 서평연구, 독서지도에 대한 부모의 주관성 연구 등 독서와 관련된 연구가 4편이었으며, 그 외 번역출판의 발전 연구, 출판중사자의 역할, KDC5판 한국어약 전개 등이 연구되었다. 서지학 영역은 지난 20여년 이상 논문의 유형과 거의 유사하게 고문헌의 해제 및 서지학적 연구, 간행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그 외에 도토구조법 복원, 조선 인종의 독서력, 조선 후기 당파별 추천도서, 조선 후기 책판 간행공간, 인쇄문화, 정조의 독서 행태 연구, 교장의 간행방식과 망실, 직지 내용분석, 조선왕릉 능지 분석, 불교 고문헌, 금속활자의 발명과 전래, 팔만대장경 기능 및 수량 재지정 문제 등이 연구되었다.

한국기록관리학회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18회 발행하여 게재된 논문 수는 153편이었다. 현재까지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회지에서 보기 드물게 전체 논문이 기록관리학 영역의 논문으로 도서관 영역이나 정보학 영역 또는 서지학 영역의 논문은 단 한편도 게재되지 않았다.

기록관리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은 2000년대 기록관리학의 도입기 단계의 주제내용은 물론 기록관리시스템이나 기술 발달의 영향과 기

록정보서비스의 전문화에 따라 한 단계 더 진전된 내용의 연구논문들이 게재된 양상을 보였다. 주요 주제내용으로는 웹 아카이빙 인터페이스,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전자기록물 메타데이터,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기록관리기관 품질척도, 기록전문직의 직무분석 및 핵심역량 평가, 디지털 보존,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 연구기록물 통합검색시스템 설계, 전자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기록물 평가제도 및 이용 활성화, 기록관 견학 프로그램, 국가기록원 어린이교육 프로그램, 기록물 폐기 평가제도,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온톨로지 설계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3.8 통시적 분석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 6개 학회지에 1970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전체 논문 5,915편을 대상으로 분석된 4대 하위영역별 논문 수는 도서관학 영역 2,998편(50.7%), 정보학 영역 1,526편(25.8%), 서지학 영역 965편(16.3%), 기록관리학 영역 426편(7.2%)으로 조사되었다. 1970년부터 연도별로 하위영역별 논문 수와 10년 대별로 논문 수를 분석한 자료는 <표 7>과 같다. 연도별 논문 수의 변화를 보면 1970년대 중반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1980년대는 연평균 28편, 1990년대는 연평균 92편, 2000년대는 연평균 266편, 2010년대는 연평균 329편으로 매우 급속한 증가현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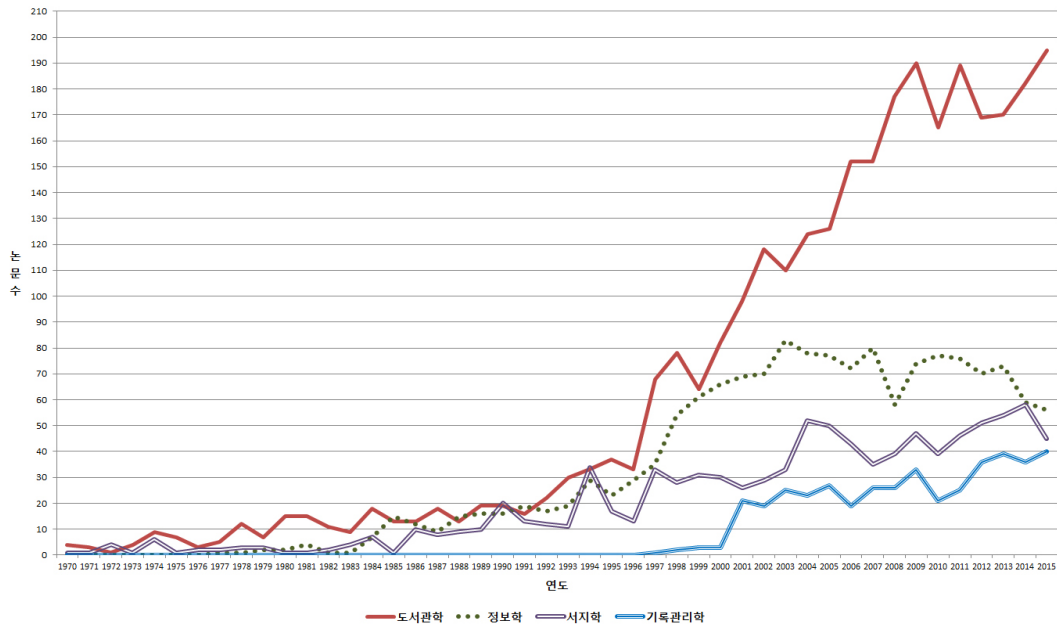
문헌정보학의 4대 하위영역인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 영역에서 특정 시점에서 특징적인 현상을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7〉 연도별/하위영역별 논문 수 분석 종합

| 연도 | 하위영역 논문 수 | | | | 계 | 연도 | 하위영역 논문 수 | | | | 계 |
|------|-----------|-----|-----|-------|-----|------|-----------|-------|-----|-------|-------|
| | 도서관학 | 정보학 | 서지학 | 기록관리학 | | | 도서관학 | 정보학 | 서지학 | 기록관리학 | |
| 1970 | 4 | 0 | 1 | 0 | 5 | 1994 | 33 | 29 | 34 | 0 | 96 |
| 1971 | 3 | 0 | 1 | 0 | 4 | 1995 | 37 | 23 | 17 | 0 | 77 |
| 1972 | 1 | 0 | 4 | 0 | 5 | 1996 | 33 | 29 | 13 | 0 | 75 |
| 1973 | 4 | 0 | 1 | 0 | 5 | 1997 | 68 | 35 | 33 | 1 | 137 |
| 1974 | 9 | 0 | 6 | 0 | 15 | 1998 | 78 | 54 | 28 | 2 | 162 |
| 1975 | 7 | 0 | 1 | 0 | 8 | 1999 | 64 | 61 | 31 | 3 | 159 |
| 1976 | 3 | 0 | 2 | 0 | 5 | 소계 | 400 | 302 | 212 | 6 | 920 |
| 1977 | 5 | 1 | 2 | 0 | 8 | 2000 | 82 | 66 | 30 | 3 | 181 |
| 1978 | 12 | 1 | 3 | 0 | 16 | 2001 | 98 | 69 | 26 | 21 | 214 |
| 1979 | 7 | 2 | 3 | 0 | 12 | 2002 | 118 | 70 | 29 | 19 | 236 |
| 소계 | 55 | 4 | 24 | 0 | 83 | 2003 | 110 | 83 | 33 | 25 | 251 |
| 1980 | 15 | 2 | 1 | 0 | 18 | 2004 | 124 | 78 | 52 | 23 | 277 |
| 1981 | 15 | 4 | 1 | 0 | 20 | 2005 | 126 | 77 | 50 | 27 | 280 |
| 1982 | 11 | 1 | 2 | 0 | 14 | 2006 | 152 | 72 | 43 | 19 | 286 |
| 1983 | 9 | 1 | 4 | 0 | 14 | 2007 | 152 | 80 | 35 | 26 | 293 |
| 1984 | 18 | 7 | 7 | 0 | 32 | 2008 | 177 | 58 | 39 | 26 | 300 |
| 1985 | 13 | 15 | 1 | 0 | 29 | 2009 | 190 | 74 | 47 | 33 | 344 |
| 1986 | 13 | 12 | 10 | 0 | 35 | 소계 | 1,329 | 727 | 384 | 222 | 2,662 |
| 1987 | 18 | 9 | 8 | 0 | 35 | 2010 | 165 | 77 | 39 | 21 | 302 |
| 1988 | 13 | 15 | 9 | 0 | 37 | 2011 | 189 | 76 | 46 | 25 | 336 |
| 1989 | 19 | 16 | 10 | 0 | 45 | 2012 | 169 | 70 | 51 | 36 | 326 |
| 소계 | 144 | 82 | 53 | 0 | 279 | 2013 | 170 | 73 | 54 | 39 | 336 |
| 1990 | 19 | 16 | 20 | 0 | 55 | 2014 | 182 | 59 | 58 | 36 | 335 |
| 1991 | 16 | 19 | 13 | 0 | 48 | 2015 | 195 | 56 | 45 | 40 | 334 |
| 1992 | 22 | 17 | 12 | 0 | 51 | 소계 | 1,070 | 411 | 293 | 197 | 1,971 |
| 1993 | 30 | 19 | 11 | 0 | 60 | 누계 | 2,998 | 1,526 | 965 | 426 | 5,915 |

도서관학 영역의 논문 수는 1970년부터 점진적인 증가 추세로 지속되었으며, 1997~1998 년간에 논문 증가의 요인으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1996년부터 계간으로 발행되었으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연 평균 2회씩 발행됨에 따라 논문 게재 기회가 확대되었다. 2000년 이후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특히 2002년도에는 논문 게재

수에 있어서 도서관학 영역만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서 1년 동안 40편 이상,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편 이상,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2011년에 이후 연간 40편 이상 게재하였다. 2009년도는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계간으로 발행회수를 확대하여 연간 40편 이상을 게재하였으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서는 연간 70편 이상이 발표되었다.



〈그림 1〉 연도별/하위영역별 논문 수 변화 추이

정보학 영역은 1977년에 처음으로 논문이 게재되어 1970년대 4편에 이어 1980년대 초반까지도 연간 1~2편 정도씩 연구되었다. 1984년에 <정보관리학회지>가 발행되면서 1980년대에 5개 학회지에 정보학 영역 82편 논문 중 74편이 1984년 이후에 게재되었다. 동시에 1980년대 <정보관리학회지>에서 게재된 73편의 논문 중 54편이 정보학 영역으로 분석되어, 이를 계기로 정보학 영역이 문헌정보학의 하위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999년도는 정보학 영역의 논문이 처음으로 60편 이상 게재되는 시점으로 그 요인으로는 1999년부터 <정보관리학회지>가 계간으로 발행되어 32편의 논문 중 31편이 정보학 영역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논문 35편 중 15편이 정보학 영역의 논문이었다. 다른 학회지에서도 정보학 영역의 비율이 예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학 영역은 1986년에 <서지학연구>가 발행되면서 서지학 영역의 연구활동이 활성화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1986년 이전까지는 연간 평균 2~3편 정도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나 1986년에 처음으로 연간 10편이 게재되었다. 1986년부터 1996년까지는 연간으로 발행되면서 1994년도에는 5개 학회지에서 34편의 서지학 영역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서지학연구>에서는 1994년도 27편 중 26편이 서지학 영역으로 다른 해보다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서지학연구>가 연 2회 발행되면서 완만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연 3회 발행되었으며, 2014년 이후 계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2004년도에는 5개 학회지에서 52편의 서지학 영역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서지학연구>에서는 42편의 논문 중 40편이 서지학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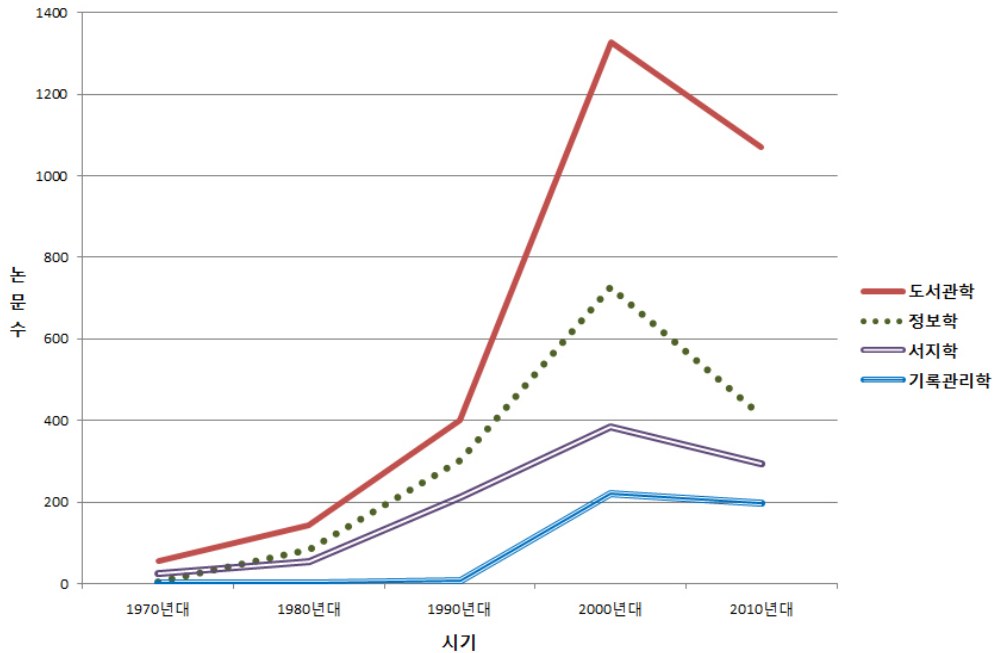
기록관리학 영역은 1997년 이전까지는 전혀 논문 게재가 없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 6편이 게재되었다. 2001년에 <한국기록관리학회지>가 발행되면서 기록관리학 영역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 6개 학회지에 222편의 기록관리학 영역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그 중에서 141편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게재되었다. 다른 학회지에 게재된 기록관리학 영역의 논문으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26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17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10편, <정보관리학회지>에 23편, <서지학연구>에 5편 등 기록관리학 영역이 문헌정보학의 하위영역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0년대에 6년 동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153편의 논문 전부가 기록관리학 영역으로 학회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구축하게 되었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 2회, 2012년과 2013년은 연 3회, 2014년부터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문헌정보학의 4대 하위영역 형성과정에서 특정 하위영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회지의 발행으로 해당 하위영역이 급속도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반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984년에 <정보관리학회지>의 발행으로 정보학 영역, 1986년 <서지학연구>의 발행으로 서지학 영역, 2001년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발행으로 기록관리학 영역의 연구논문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문헌정보학의 하위영역별로 1970년도 이후 10년대별로 누적 논문 수의 변화 추이는 <그림 2>와 같이 분석되었다. 1970년대(1970~1979년)는 도서관학 영역과 서지학 영역에 정보학 영역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1980년대(1980~

1989년)는 도서관학 영역이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5년(<그림 2>의 X축 1970년대와 1980년대 중간 위치)부터 정보학 영역이 서지학 영역을 추월하는 시점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1990~1999년)는 도서관학 영역과 정보학 영역이 비슷한 기울기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서지학은 다소 완만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그림 2>의 X축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 1990년대 후반에 기록관리학 영역이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게 시작되었다. 2000년대(2000~2009년)는 4대 하위영역의 누적 논문 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도서관학 영역은 매우 가파른 기울기로 1990년대 보다 3.3배 이상의 급속한 성장을 보였으며, 정보학 영역도 1990년대 보다 2.4배 이상의 논문 증가를 기록하였다. 서지학 영역도 1990년대 보다 1.8배 정도로 완만한 증가 추세였으며, 기록관리학 영역은 2001년 이후 매우 높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대(2000~2015년)는 2015년까지 6년간의 논문 수를 누적한 것이 때문에 그래프가 하향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연평균 논문게재 편수에서 2000년대의 266편에서 2010년대 329편으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연구된 5,915편 논문 중에서 1990년 이후 발표된 논문이 5,553편으로 93.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는 4,633편으로 78.3%로 분석되었다(<표 7> 참조). 이러한 결과는 1990년 이후 학회지 발행회수의 증가와 문헌정보학의 세부주제 분야의 확대, 대학 및 국가의 연구비 지원의 확대, 대학원생 및 연구자 수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10년대별/하위영역별 누적 논문 수 변화 추이

4. 결론 및 논의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역시 타 학문과 함께 이러한 목표를 공유한 채 60여 년간 지식의 추구를 위해 발전해왔다. 그 동안 문헌정보학이 하나의 고유한 학문영역으로 성장하였는지, 문헌정보학의 학술활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헌정보학이 타 학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등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정체성 및 연관성을 파악하는 일은 문헌정보학의 향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의 일부분으로 문헌정보학 학문영역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 분야 6개의 학회지에 1970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전체 논문 5,915편을 분석하였다. 개별 논문의 세부 주제에 의거하여 1년 단위로 연도별 분석을 수행한 후 연도별 및 10년대별로 4개 하위영역에 대한 빈도를 계산하였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이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지만 학술적 활동은 1970년을 기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1970년 이전은 도서관학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시기로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할 학술지가 존재하지 않아 도서관 관련 기관지를 활용한 것도 중요한 학술활동으로 평가되어야 하겠다.

1970년대는 1970년에 한국도서관학회의 〈圖

書館學)이 발행되면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도서관 운영과 봉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주제의 정통적인 도서관학 영역이 중심이 되어 한문학 배경의 기초적인 서지학 영역이 공존하는 문헌정보학 학문영역 형성의 태동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는 1970년대 문헌정보학 학술활동의 태동기를 지나 기존의 3개 학회지에 정보학 영역 중심의 <정보관리학회지>와 서지학 영역 중심의 <서지학연구>가 새롭게 발행되면서 정보학 영역이 문헌정보학 하위영역으로 포함됨과 동시에 서지학 영역의 연구활동도 활발해지는 시기에 해당된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문영역이 도서관학과 서지학의 2대 하위영역에서 정보학 영역을 포괄하는 3대 하위영역으로 형성과 더불어 연구활동의 도약기로 평가된다.

1990년대는 한국문헌정보학회 연구자들이 5개 학회지에 920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하여 활발한 성장기를 구축함과 동시에 1980년대에 형성된 문헌정보학의 3대 하위영역인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이 매우 균형적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은 문헌정보학 분야에 새로운 학자 및 연구자들의 꾸준한 증가로 연구 인력의 수가 크게 확대된 점과 학회지 발행회수의 증가에 따라 논문을 게재할 기회가 넓어진 점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록관리학 영역의 연구가 시작되면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시기로 분석되었다.

2000년대는 1990년대 3대 하위영역의 성장

기를 한층 더 발전시킨 황금기를 구축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의 6개 학회지가 모두 정기적으로 발행되면서 가장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진 시기임과 동시에 4대 하위영역인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이 확실하게 정립되는 시기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록관리학 영역이 2000년대부터 하위영역으로 연구활동이 시작되어 다른 하위영역에 비하여 연구자의 수나 논문 수의 차이가 있지만 매우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2010년대는 2000년대와 유사한 주제를 계속 연구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대가 종료되는 2020년에는 현재보다 성장된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의 하위영역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학술지 논문의 주제내용을 분석하는 기법만을 사용하였다. 2020년에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공식적인 학술활동이 시작된 지 50년을 맞이함을 계기로 문헌정보학 분야 전체 학술지를 대상으로 통시적인 전수조사를 통한 다양한 연구를 위한 첫 출발점으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50년간 연구자들의 학술지 연구내용분석을 통한 한국문헌정보학의 전체적인 연구동향과 지적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연구방법론 활용 분석, 학회지별 분석, 세부주제별 분석, 이론 활용성 분석 등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추후 계속 연구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제 학문적 교육이 시작된 지 60년을 맞이하면서, 학회의 학술활동도 50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문헌정보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김성진, 정동열. 2004. 문헌정보학 이론의 효율성과 활용성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1): 23-53.
- [2] 김정현. 1991. 정보학의 연구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8: 269-300.
- [3] 남태우, 이진영.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51-472. <<http://dx.doi.org/10.16981/kliss.40.2.200906.451>>
- [4] 리재철. 2010. 한국문헌정보학회 창립전후사(創立前後史). 『한국문헌정보학회 40년사』, 서울: 한국문헌정보학회: 37-52.
- [5] 박자현, 송민. 2013.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1): 7-32.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1.007>>
- [6] 박지연, 정동열. 2013. 저자서지결합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의 지적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4): 31-59.
- [7] 서은경. 2010. Longitudinal Analysis of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JASIST 1985-2009. 『정보관리학회지』, 27(2): 129-155.
- [8] 손정표. 2003.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9-32.
- [9] 오세훈, 이두영. 2005. 우리나라의 정보학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1): 167-189.
- [10] 이란주, 임지혜. 2002. 한국의 서지학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서지학회 발간의 <서지학연구>에 한정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1): 315-336.
- [11] 이용남 외. 1995.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정보관리학회.
- [12] 정동열, 조찬식. 2007. 『문헌정보학총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3] 정진식. 2001.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20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3): 55-78.
- [14]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13.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5] 한국연구재단. 2016. 『학술연구분야분류표』. [online] [cited 2016. 6. 1.] <https://www.nrf.re.kr/nrf_tot_cms/show.jsp?show_no=182&check_no=178&c_relation=0&c_relation2=0>
- [16] 한국정보관리학회. 2009. 『한국정보관리학회 25년사』. 수원: 한국정보관리학회.
- [17] 한미경. 2016. 『서지학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서지학연구』, 65: 119-148.
- [18] Järvelin, K. and Vakkari, P. 1990.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2(4): 395-42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Sung-Jin and Jeong, Dong-Youl. 2004. “A Study on Efficiency and Use of Theori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1(1): 23-53.
- [2] Kim, Jeong-Hyen. 1991. “A Study on the Research Area of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8: 269-300.
- [3] Nam, Tea-Woo and Lee, Jin-Young.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51-472. <<http://dx.doi.org/10.16981/kliss.40.2.200906.451>>
- [4] Lee, Jai-Chul. 2010. “The History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In *40 Years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52.
- [5] Park, Ja-Hyun and Song, Min. 2013.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i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using Topic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1): 7-32.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1.007>>
- [6] Park, Ji Yeon and Jeong, Dong Youl. 2013. “A Study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by Author Bibliographic Coupling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31-59.
- [7] Seo, Eun-Gyoung. 2010. “Longitudinal Analysis of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JASIST 1985-2009.”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2): 129-155.
- [8] Sohn, Jung-Pyo. 2003.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1957~2002.”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3): 9-32.
- [9] Oh, Se-Hoon and Lee, Too-Young. 2005. “Research Trends of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1): 167-189.
- [10] Lee, Lan-Ju and Lim, Ji-Hea. 2002.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Bibliograph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3(1): 315-336.
- [11] Lee, Young-Nam et al. 1995.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 [12] Jeong, Dong Youl and Cho, Chan-Sik. 2007. *Introduc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13] Chung, Jin-Sik. 2001.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1996~200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3): 55-78.
- [14]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6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15]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6. *Subject Classification of Discipline Research*. [online] [cited 2016, 6, 1.]
<https://www.nrf.re.kr/nrf_tot_cms/show.jsp?show_no=182&check_no=178&c_relation=0&c_relation2=0>
- [16]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09. *25 Year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Suwon: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 [17] Han, Mi-Kyung. 2016. "A Study on Bibliography Research Trends." *Bibliography Research*, 65: 119-148.